



정자나무
느티나무

가지 자른 자에게 벌을 내린 느티나무

		
지정번호	포항-11-15-2	경북 포항시 북구
지정년도	1982	송라면 방석리 218
관리기관	포항	36° 13' 43.97" N
수령	660년	129° 22' 10.52" E
수고	20m	
흉고둘레	6.4m	

정자나무(정자목)이면서 당산나무(당산목)인 보호수(포항-11-15-2) 느티나무는 마을 앞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과 들판처럼 보이는 공터 사이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6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40cm, 밑동둘레는 6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8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4갈래로 갈라졌으며, 그중 한 가지가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의자가 놓여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고을의 어떤 사람이 이 느티나무의 아래쪽 굵은 가지를 잘라 장롱을 만들었다. 그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병을 얻었는데,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애타는 마음에 그의 어머니가 점술가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점술가로부터 신령스런 나무를 훼손하여 방에 들여놓은 탓이라는 말을 들었다. 깜짝 놀란 가족은 그 장롱을 불태우고 타고 남은 재를 챙겨서 느티나무를 찾아가 참회의 술을 올리며 빌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신통하게도 병이 나았다. 이 느티나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일화도 전한다. 1990년대 초에 서서히

죽어가던 느티나무를 살리려고 관리 당국의 대대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흙 쌓기를 너무 많이 하여 나무의 숨 쉴 구멍을 막아 버렸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항시 노거수회가 나서서 흙을 거두어내고 느티나무에 영양제를 주사하였다. 그리고 노거수회는 포항시와 뜻을 모아 보호 울타리를 세우고, 이 느티나무의 부양비(扶養費)를 담당하는 자매결연까지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느티나무와 제철 관련 회사가 결연을 맺게 되었다. 느티나무 아래 결연비(結緣碑)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칠백 년에 이르도록 이 자리 지켜선 느티나무여, 그대 푸른 그늘에 안길 때면 푸른 꿈, 푸른 가슴 서로 얹혀서 만년을 가도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인연 맺으려 하노라” 마을 사람들은 이 가지의 잎이 남쪽으로 먼저 나오면 흉년이 되거나 흉수가 나고, 북쪽으로 먼저 나오면 풍년이 들고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도리산에서 산신제를 지낸 뒤 동제사를 지내는데, 동제사 때 느티나무 동치에 금줄을 치고, 이 나무 아래의 샘물을 길어 제사용으로 쓰고 있다.